

2027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

보행약자 위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기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해 시군이 취약계층과 보행약자의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을 조성·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서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 등 3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숲과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숲길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당 최대 16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사업은 기존 도시숲과 녹지

공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통선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3일까지 경기도를 통해 공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조정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

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취약계층과 보행약자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우수한 대상지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누구나 숲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와 의정부시에는 산림복지 나눔숲 2곳을 조성하고, 광주시와 구리시에는 무장애나눔길 2곳을 조성한다. 이천시에서는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사업 1곳을 추진하고 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경기도청제공

부안군, ‘고은찰’ 재배 현장연사회 개최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 생산단지 육성 박차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시범포장에서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장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대응하고 부안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작목인 수수 ‘고은찰’의 재배기술과 기계화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수수가 전작작물직불금 하계 지급대상에 포함돼 ha당 24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기계화가 가능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고은찰 품종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생력과 장비를 지원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약 30% 절감할 것

으로 기대되며 신품종 수수 고은찰은 도복에 강하고 범용 콤팩트 수확이 가능해 논 재배에 적합하며 기존 품종보다 종실수량이 약 26%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날 연사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고은찰 품종 특성 설명, 휴림과종기를 활용한 직파 시연이 진행됐으며 농업인들과 사

업 추진 방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잡곡의 국내산 원료곡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센터 관계자는 “수수 생산의 생력화 기반과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 부안 지역에 적합한 논 타작물 소득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품종수수 고은찰재배현장연사회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개소

북부권 농업인 농기계 이용 편의 향상 기대

삼척시가 도계권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 증진과 발농업기계화 촉진에 위해 조성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를 개소한다.

개소식은 도계읍 농구점리길 27-23(도계공설운동장 앞)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에서 열렸으며,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활개선삼척시연합회 소속 온열질환 예방요원들이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도계분소는 총 사업비 1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2㎡ 규모로 조성됐으며, 농기계 보관실과 사무실, 부품실, 휴게실, 실습장 등을 갖췄다.

그동안 도계지역의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도계분소 개소로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시간과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고, 농번기 적기 영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노

동력을 절감하고, 발농업 기계화를 촉진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임대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농기계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계분소 개소는 단순히 농기계를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도계권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www.kfeedia.or.kr

| 한국단미사료협회

- 정부위탁업무
- 회원사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검사
- 세계적 분석 경쟁능력 강화 및 확보
- 사료분석방법 개발 등 분석교육 지원사업

TOGETHER WE CAN!

안전한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KFAIA 한국단미사료협회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본 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AIA 회관 Tel. 02)585-2223
사료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95 Tel. 044)863-5790

임실군,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앞장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치유음식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치유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역 식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농산물가공센터 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임실군민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론교육은 △치유음식에 대한 이해와 △식재료 활용방법 △치유음식 생활화 방법이 진행되며, 실습교육은 △심혈관



▲임실군제공

건강과 고혈압 예방 △성인병 예방과 소화기 건강 △혈당관리와 동맥경화 예방 등 건강 주제별 치유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교육으로 산조개죽,

산나물두부스테이크, 귀리찰보리밥 등 총 10여 종의 치유음식을 배우며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본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소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유음식 교육은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치유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 예천 돼지·소 농장 구제역 발생, 방역 총력 대응

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영주 소재 도축장 환경검사서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농가와 500m내 농장 정밀검사 결과 예천 소재 돼지농장(1호)과 소 농장(5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지난 6월 28일 구제역 항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항체검사서에서 구제역 NSP 항체(해당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가 검출되어 구제역 긴급행동지

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농장 1호 14두, 소농장 5호 24두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발생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개체에 대하여 긴급 가축처분과 함께 농장 진입로 및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의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그 외 지역에는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하여 2026년 7월 3일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조치와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